



재중 한국 기업의 성공 파트너이자, 한중 경제 협력의 든든한 다리!

취재 및 정리_ 이나연(재외동포신문 베이징 재외기자)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제조 2025(中国制造2025)’,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며 첨단 기술 산업에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 보다 우호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재중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재중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중국한국상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원운재 소장을 만나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역할과 중국한국상회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92년 한중 수교직후 한중간 경제협력 강화와 중국진출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중국의 기업 및 대외무역 분야를 대표하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한중민간경제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1993년에 중국에 북경사무소를 설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 설립을 주도하여 현재까지 중국한국상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내 42개 지역에 설립된 지역상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중국비즈니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중 경제협력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설립연도 : 1993년
 설립목적 : 중국한국상회 운영을 통한 재중 한국기업의 권익대변과 경영애로 해소 지원
 주소 : 北京市 朝阳区 霄云路 38号 现代汽车大厦 311室
 연락처 : +86-10-8453-9756 ~ 7
 이메일 : china@korcham.net



한-중 경제 협력의 교두보, 중국한국상회

중국한국상회(中国韩国商会,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 China)는 1993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 단체로, 한중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42개 지역 상회에서 약 3,500여 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상의 북경사무소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 18개국 외국 상회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한국상회는 한중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중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중 한국 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양국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7일과 6월 26일에는 중국 상무부 고위 인사가 중국한국상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한, 8월 6일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위치한 북경시 조양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중국 내 기업 활동의 인허가, 마케팅, 공정 거래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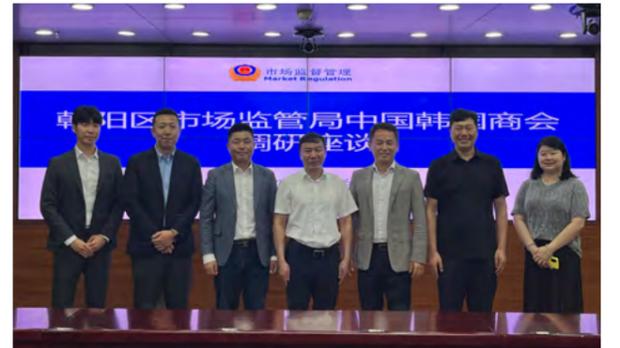
이와 같은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거나 점진적인 개선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수출 거래가 많은 A사는 수년간 중국 금융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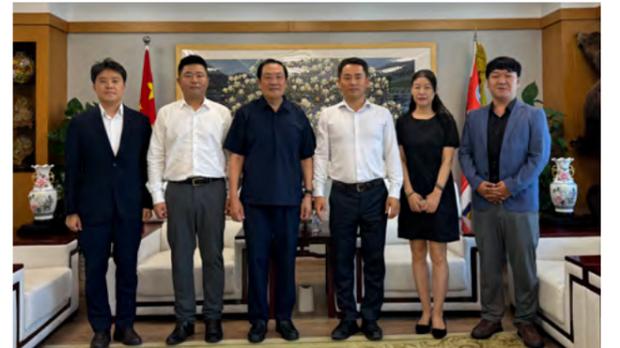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경영지원 세미나



2024 산둥지역(위해,연태) 기업 설명회



북경시 조양구 시장감독관리국 좌담회



아주경제발전협회 방문 간담회



제4회 한중 고위인사 대화



제7회 둔황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제92회 베이징 모닝포럼



중국 길림 - 한국 경제무역 교류회

부터 받지 못했던 수출 대금을 최근 수령했고, 해결이 지연되던 B사의 보조금 수령 문제, C사의 토지출연금 관련 합의 문제도 최근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한국상회는 ▲정부 조달 시장에서 내외자 기업 간 차별 해소 ▲중국 국유기업 파산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약속 불이행 문제 ▲외자 기업 진입이 제한된 업종의 진입 장벽 완화 ▲환경 보호세 관련 대기 오염 측정 부담 완화 ▲갈륨·흑연 등 수출 규제 완화 등 재중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간담회 및 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미수 대금 회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지속할 예정이다.

<참고> 중국한국상회 - 중국 정부 최근 교류 내역**

- 상무부 외자기업 원탁회의 (2.28, 상무부 링지(凌激) 부부장)
- 상무부 아주사 간담회 (3.13, 상무부 아주사 왕리핑(王立平) 사장)
- 상무부 외자사 간담회 (3.22, 상무부 외자사 탕송(唐颂) 부사장)
- 왕징가도 판사처 간담회 (3.29 금, 왕징가도 판사처 리우단(刘丹) 주임)
- 상무부-중국한국상회 회장단 간담회 (4.24 수, 상무부 리페이(李飛) 부부장)
- 정부조달 관련 외자기업 원탁회의 (5.15 수, 상무부 링지(凌激) 부부장)
- 상무부, 중국한국상회 방문 간담회 (5.17 금, 상무부 외자사 탕송(唐颂) 부사장)
- 베이징시-외국상회 좌담회 (6.13 목, 북경시 스마홍(司马红) 부시장 주재)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외국상회 좌담회 (6.24 월, 런홍빈(任鸿斌) 회장 주재)
- 베이징 모닝포럼 (6.26 수, 상무부 외자사 탕송(唐颂) 부사장)
-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회의 (7.11 목, 상무부 수출입관계국장)
- 절강성 소흥시 CCPIT 회장단 간담회 (7.16 화, 소흥시 CCPIT 회장)
- 상무부 외자기업 좌담회 (7.17 수, 상무부 링지(凌激) 부부장)
- 북경시 조양구 시장관리감독국 좌담회 (8.6 화, 이상린(易湘林) 시장관리감독국장)
- 중국 수리부(水利部, 수자원 관리부처) 간담회 (8.9 금, 중국한국상회)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

중국한국상회는 대한상의, CCIEE(중국국제경제교류 중심)와 함께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경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말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중 경제 무역 협력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AI와 바이오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

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4회 대화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확실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한중 고위 경제인사 대화'는 2018년에 시작된 1.5트랙 대화 플랫폼으로, 양국 주요 기업 및 전직 정부 인사들이 참여해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도모해 왔다. 이 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방식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이징모닝포럼' 등 각종 세미나 개최

중국한국상회는 재중 한국기업들에게 중국의 경제,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베이징모닝포럼'에서는 중국 관련 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며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최근 포럼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한반도 정세 변화와 국내외 기업들이 직면할 외교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기업실무진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실무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지역순회 경영지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재중 한국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중국한국상회는 산업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기조사'와 '중국진출 한국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 및 지정학적 위기 확대에 따라 재중 한국 기업들이 겪는 경영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기업의 전략적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중국내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추세 파악과 향후 대 중국 직접투자 전략 및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재중한국기업백서

중국한국상회는 재중 한국기업의 현안을 집대성한 <재중한국기업백서>를 발간하여 중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노동, 비자, 세무, 회계, 통관 등부터 철강, 자동차,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중국 상무부 - 중국한국상회 간담회



중국 상무부 이구환신 설명회



중국 상무부 이구환신 설명회



중국 수리부 회의

INTERVIEW _ 원윤재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소장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 새로운 한중관계 개념정립이 필요한 시간”



하기 위한 사절단 행사였는데,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했었다. 2011년 봄에는 중국 강소성 곤산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 행사에 30여 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참가하기도 했다. 대규모 기업 사절단을 이끌고 해외 전시회에 참여했던 첫 경험이었었는데, 여러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계기였다. 2018년 가을에도 중국을 몇 차례 방문했다. 주요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접경 지역을 방문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 정세가 좋았던 시기로 기억한다. 그 당시 국내 여러 기관들과 기업이 접경 지역에 관심을 갖고 방문했고, 관련된 행사가 국내외에서 자주 열렸던 시기다. 비록 학창 시절엔 중국어를 배우거나 중국 관련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연으로 중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다.

원윤재 소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와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입사하여 조사본부, 국제본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팀을 이끌며 주요 기업들과 함께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주요국을 방문하며 유치 교섭 활동을 지원했으며, 2024년 2월 베이징 사무소장으로 부임했다.

□ 중국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가?

입사 후 첫 출장지가 중국이었다. 벌써 20년 전 일인데, 2004년 당시 중국은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

□ 북경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부임하고 정신없이 적응하다 보니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국 기업들과는 물론 중국 정부 유관 기관과의 교류가 많았던 것 같다. 팬데믹 종식 이후 그동안 못했던 많은 오프라인 행사들이 자주 열리고, 한중 교류 확대 차원에서 가급적 폭넓은 네트워킹을 갖자는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 바쁘게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무엇보다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 최대한 빨리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통역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회사 동료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 공무원들과 자주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많다 보니 어느 정도의 중국어 실력이 필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근엔 아내와 같이 중국어 과외를 받고 있다. 아내도 중국어 능력에 대한 열정이 많은 편이다. 유튜브 등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찾아다니며 중국어 학습에 부부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올해가 지나기 전 유창하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의도하는 바를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올해 8월 말 있었던 길림성 정부 주최 한중 경제 교류 행사가 기억에 남는다. 다수의 한중 기업인들이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모여 교류한 것이 우선 인상적이었다. 행사 공식 프로그램으로 참여했던 백두산 시찰도 기억에 남는다. 중국 정부 기관인 백두산관리위원회와 공식 간담회 이후 길림성 상무청 공무원의 인솔하에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천지는 날씨 변수가 많아 올라가더라도 못 보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당시 날씨가 좋아 천지의 맑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말로만 들었던 천지를 직접 눈으로 보니 감동이 남달랐던 것 같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 최근 중국한국상회 활동이 활발한데,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지?

중국한국상회는 1993년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 등 18개국 상회만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공식 활동하고 있는 만큼, 책임 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해

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이 일하고 계시는 중국한국상회 사무국 직원들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종종 나눈다. 급변하고 있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재중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한국상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거시적인 환경 변수는 어쩔 수 없는 요소지만, 양국 기업과 민간 차원의 협력, 재중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와의 충실한 가교 역할은 중국한국상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보자는 생각이다.

□ 한중 관계나 중국 경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많은 이유로 최근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견지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의 국가이고, 한중 양국은 여전히 주요한 교역 상대국이자 투자국이며 중요한 중간재 공급처이다. 중국은 또한 풍부한 기술 인재, 개발도상국 중 최대 R&D 투자액(한국의 약 6배 이상), 정부의 장기적인 기술 굴기 의지 등에 의해 빠르게 기초과학과 주요 기술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트렌드를 잘 분석하고, 체계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중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재가 여전히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관계에서 일방적인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전략적인 협력과 경쟁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손자병법의 지적이 새롭게 다가오는 요즘이다.